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 정면 돌파 투쟁 선포

1만 5천 금속노동자대회·9만 전국노동자대회 성사... “윤석열 맞선 투쟁이 전태일 정신 계승”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조법 개정 ‘정면 돌파’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11월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노조법 개정, 노조할 권리 쟁취,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 15,000여 명은 늦가을 장대비에 흔들림 없이 노조 결의대회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자 처벌 촛불집회까지 다섯 시간 넘게 투쟁을 전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현 정세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윤석열 정권과 투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은 정권의 사냥개 검찰을 풀어 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고, 손배·가압류 노동 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라면서 “더 많이 일 시키고 조금주면서, 쉽게 해고하고 노조의 손발을 묶는 노동개약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규탄



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동자는 오늘 10만 노동자 총궐기를 성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약과 손배·가압류를 확실히 막아야 한다” 라며 “금속노조가 원청 사용자성을 확보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으로 총 진군할 것이다. 정면 돌파로 싸우겠다” 라고 선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어려운 조건에 10만 노동자 총궐기를 성사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위장청산 철회를 촉구하며 옛새재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최윤미 한국외대이퍼분회장의 투쟁연설을 앞세우며 태평로 전국노동자대회장으로 행진했다. 금속노동자들의 행진대열은 본대회 시작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개약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노동자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을 막으며 후퇴할 것인지,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으로 전진

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라면서 “노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장애인·비장애인, 성별, 업종, 나이, 조합원·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함께 싸워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현장투쟁 발언에 나선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보전하도록 노조법 개정 투쟁으로 연대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정당원 등 9만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승례문 앞부터 광화문 네거리 직전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윤석열 규탄·퇴진을 외치고, 노동개약 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약 저지, 노조법 개정 투쟁을 결의했다.